

광주비엔날레 기간 '통합축제' 연다



광주시가 '제15회 비엔날레'와 연계한 가을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를 선보인다. 지난해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 장면. <광주일보 자료>



지난 2022년 ACC에서 열린 아시아문화페스티벌에 참여 작가들이 발표하는 모습. <ACC 제공>

광주시가 세계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축제,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 남구 양림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맞춰 가을 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 광주'의 첫선을 보인다.

G-페스타는 비엔날레를 포함한 17개 축제·행사를 통합해 가을철 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G-페스타는 각각 예술과 맛을 콘셉트로 시즌 1·2로 나눠 진행된다.

시즌1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콘텐츠 종합전시회 '에이스 페어' (광주관광공사),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프린지 페스티벌 (광주문화재단),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스포츠대회 (조선대), 추억의 충장축제 (광주 동구) 등 11개 행사가 포진했다.

시즌2에서는 10월 17~26일 식품대전 (광주관광공사), 김치축제 (광주시), 송정 남도 맛 페스티벌 (광주 광산구), 서창 역사축제 (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 17개 축제·행사 통합 브랜드 'G-페스타' 올해 첫 선 9월~10월 시즌 1·2로 나눠 체류형 예술여행·미식 등 다채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찾는 관광객이 광주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명소를 연결하는 체류형 예술여행 상품도 출시한다. 양림동, 무등산, 양동시장 등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19·26만원 상품을 여행사를 통해 이달 말부터 서비스한다.

시는 당일 관광객을 위한 권역별 자투리 관광코스도 제공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권, 무등산권, 양림동권, 광주권역으로 나눠 광주비엔날레나 스포츠경기 관람 후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광주시와 관광공사는 여행상품과 코스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향의 도시 광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식관광을 위한 '양림스푼워크'가 9월 1일부터 30일간 열린다. '양림스푼워크'는 양림동 일대 식당·카페

등 15곳이 참여하며, 이벤트 메뉴 주문시 20~30% 할인혜택을 준다. 양림동 일대에서는 전시, 오픈 스튜디오, 도슨트 투어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여행 후기나 이색맛집에 대한 리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고 링크를 공유하면 추천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관람편의를 위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등 교통거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광주투어버스(관광DRT)도 운영한다.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편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광주관광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규 광주시 신협력추진본부장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관광이 조화된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비엔날레를 계기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말리 교향곡으로 지친 영혼 '토닥토닥'

광주여성필, 29일 창단 25주년 음악회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 장면. <광주여성필 제공>

지휘자 겸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리(1860~1911)가 발표한 교향곡 1~4번은 '완결된 4부작'이라 칭할 정도로 상호 연관성이 크다. 악곡들은 영웅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을 주제로 담고 있다.

그중 '교향곡 4번'은 천상의 삶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말리가 탐구한 초기 예술적 의미를 심오하게 그려낸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광주여성필·대표 김유정)가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를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오직 '말리 교향곡 4번 사장조' 한 곡으로 채워지는 이번 공연은 말리 초기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는 자리다.

차분하게 시작하는 악곡은 편안하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주를 이룬다. 천상에서의 삶을 노래하기 위해 극도로 복잡한 조성 진행과 정교한 대위법을 활용했다.

천국의 평온함을 노래하는 작품이지만 1악장의

장송행진곡과 나팔소리, 3악장에서 울려 퍼지는 오보에 소리 등은 비극성을 자아낸다.

광주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 학·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승유가 지휘봉을 잡는다. 헬싱키 심포니에타, 빈 바르코케스트라 등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 씨는 현재 양주시향 지휘자, K아트 예술감독 등을 맡고 있다.

소프라노 박지현도 협연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했으며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주여성필 김유정 대표는 "1995년 창단한 광주여성필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아 이를 기리는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여태 550회 이상 공연을 펼쳐온 데 그치지 않고 600회, 1000회까지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향교, 32대 장의단 첫 회의 개최

월례 교양강좌



유복 입고 진행된 대성전 고유례. <광주향교 제공>

광주향교(전교 기호석)의 제 32대 장의단 첫 회의 및 월례 교양강좌가 성료했다.

광주향교는 21일 최근 선발한 100명 장의를 대상으로 성균관장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32대 장의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례 교양강좌도 개최해 장의단 역량 강화 및 유교정신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장의단 전원이 유복을 입고 대성전에서 문묘 고유례를 올리는 의례를 거행했다. 그 동안의 갈등에서 벗어나 유림의 화합과 광주향교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어진 32대 첫 장의회의에서는 성균관장의 임명장 전수 외에도 장의 본분, 유교정신 실천, 향교 발전 현안을 다짐하는 시간이 가졌다. 또한 향교의 현황과 임무에 대한 소개와 추기석전 준비를 위한 문묘 거동 및 배례의식, 석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됐다.

유림의 가치를 조명하는 특강도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전주대 이재운 교수가 '고운 최치원을 통해 오늘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오늘 추구해야 유림의 의의와 방향을 제시했다.

기호석 전교는 "새로운 장의단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양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교정신을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케스트라 단원 되고 무료 클래식 수업 받고



지역 각지에서 다양한 무상 클래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도 올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클래식 수업'을 개설하고 단원을 모집한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와 여성행복응원센터가 '행복 한아름 오케스트라' 단원을 오는 31일(오후 6시)까지 선착순 20~24명 선발한다. 클래식 악기에 관심 있는 북구 거주 양육인 가정은 대

상으로 부모·자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제1·2 바이올린과 첼로며 선착순 10명(자상위, 다자녀, 한부모 가정)은 악기를 대여해 준다. 북구행복아울림센터 2층 어울림 강당에서 오는 9~10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과 악기관리, 기본자세는 물론 악기운지법, 연주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동요곡과 변

주곡, 다양한 연주곡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되며 합주 및 공연기회, 성평등 성인지 교육 시간도 있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임복희 감독은 "음악을 매개로 가족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며 "참가자들이 예술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강료 무료, 구급 폼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